

## 남한산성 성벽 길을 걸으며



장광식 기술교육원 추진위원회 위원장  
아이디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남한산성 성벽 길을 걷자는 아내의 제안에 몸을 벌떡 일으켰다. 푸른 가을하늘 그리고 그 내음이 저질체력 그녀를 움직이나보다. 남문로터리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북문을 향해 걷는다. 들뜬 아내! 그리고 보니 성벽 길은 10수년만이란 다. 보통 때 우리의 산행코스는 마천역에서 비호부대를 지나 왼쪽으로 골프장 울타리를 따라 오르다가 능선을 만나면 간식을 먹고 내려오는 게 다였다. 나도 덩달아 신이 나서 코스 설명을 해준다. 북문까지 가서 시계방향으로 돌고 동문에서 찾길을 따라 로터리로 오는 코스. 반시계방향으로 돌아 서문과 수어장대, 남문을 찍고 로터리로 오는 코스. 수어장대에 필이 꽃혀 주저 없이 반시계방향을 택한다.

차량 통행금지 차단 봉이 보이니 이곳이 마지막 찾집이다. 연한 아메리카노 한잔을 테이크아웃하고 북문을 향해 걸음을 떼는데 핸드폰이 울린다. 임형이다. 지난주에 모임에서 같이 식사는 했으나 특별히 전화할 사이는 아닌데 떨떠름한 기분으로 전화를 받는다. 아니나 다를까, 재건축에 관해서 묻는다. ‘친구네, 3백 세대, 건설회사’가 키워드. 결국 적당한 건설회사를 소개해 달라는 이야기. 건설회사를 소개해 줄 주제도 안 되지만, 이미 재건축에 관해 무지함을 드러낸 상황이다. 엔지니어라 그렇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 “내가 봐도 건축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는 거 같아.” 아내가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은근히 부하가 끊는다.

북문은 금방이다. 벤치에 앉았는데 커피가 너무 진해서 별로란다. 내가 다 마셨다. “우리 집은 어디에 있어?” 성벽 바깥을 가리키며 묻는다. “그 쪽은 하남이야. 서문 쪽으로 더 가야 보여.” 투명스럽게 대꾸했다. 성벽에 바짝 붙어 있는 계단이 무릎에는 별로라 콘크리트 인도를 선택했다. 얼마동안 걸으니 서문이다. 성벽 바깥의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다. 롯데 123층이 보이니 기분이 들떠서 아내에게 설명한다. “롯데 123층에서 우리 방향으로 왼쪽에 보이는 숲이 오금공원, 오른 쪽이 올림픽 아파트, 그 사이를 잘 보면 방이역도 보이고 가스 충전소, 장털보 설령탕, 그 옆에 우리 집. 다 잘 보이지?” 물론 방이역부터는 농담이지만 아내는 열심히 들여다본다.

산은 언제나 감동을 준다. 이번에는 특별히 겸손을 가르쳐준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 그거면 족한 것을,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욕심으로 꼭 차있다. 아직도 성숙하지 못했음을 반증한다. ‘송파구가 한눈에 보인다 해도 우리 집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우리 식구가 저녁이면 돌아와 모이고, 비를 피하며, 누워 잘 수 있는 소중한 우리 집.’ 겸손한 우리 집! 주인인 나보다 말할 수 없이 훌륭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수어장대. 수어장대를 둘러보는 건 두 번째고 사람구경이 우선이 되었다. 유치원에서 소풍을 나온

듯한데, 금방 눈에 띄는 반의 이름만 해도 '세종대왕반, 안데르센반, 슈바이처반' 이 있다. 수어장대 앞 계단에서 반별로 단체사진을 찍는데 통제하느라 한참 걸린다. 애비들이 워낙 많다. 군에 간 우리 큰놈 때 나도 꽤나 쫓아다녔는데, 그때의 기억으로는 거의 혼자였을 때가 많았고 엄마들이 '별놈 다 보겠네.' 하는 눈빛이었다. 아들놈 둘을 키우며 지금까지 먹고 산 기반이, 남들이 알아주든 말든, '구조엔지니어링'이었음이 새삼 감사하다.

수어장대를 나와 남문 쪽으로 가는데 성벽 밖 풍경은 여기저기 아파트 공사 중이다. 멀리는 세곡지구, 가까이는 위례신도시인 듯싶는데 왕년 생각이 새록새록 이다. 지금이야 범용품이라 할 수도 있겠으나 10년쯤 전인 그때는 합판을 가지고 일체형데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생소했던 시절이었다. 사실 처음은 데크플레이트가 아니고 부방향 철근조립까지 완성시킨 보로 구획된 단위 슬래브 품이었다. 우리 회 회보에는 PF/R로 소개했었고 테이블데크라는 별칭이 있었다. 자양동 스타시티나 가든파이버 TOOL동 등에도 적용했지만 아파트 지하주차장 현장이 가장 많았었다.

새로운 아이템의 성공은 구조엔지니어가 핵심에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구조엔지니어가 빠지고서야 트러스, 면외좌굴, 침하균열, 거푸집 같은 문제들을 어떻게 접근하고 해결했으리요? 그렇지만 기계, 전기, 생산관리, 시공 쪽의 엔지니어는 물론, 안목 있는 투자자를 비롯해 원가를 분석하거나 회사를 운영하는 책상물림(알잡아 보는 것이 아니라 엔지니어가 아니라는 의미)도 꼭 필요했다. 어쩌면 그들 중 누군가는 구조엔지니어도 꼭 필요했다고 회상하겠지. 우리 집이 내게 최고임은 사실이나 송파를 구성하는 일원임과 같다고나 할까.

어느덧 남문이다. 가을을 맞은 남한산성의 상쾌한 바람이 심신을 새롭게 한다. 로터리 주차장 부근 한 식당에 들어가 잔치국수를 주문했다. 석쇠에 굽는 가래떡에 이끌려 들어갔는데 국수도 적당히 잘 끓여 맛있다.

집에 가는 길에 가든파이버 이마트를 들린다. 카트를 세우고 반자가 없는 천정을 가리키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린다. "저 슬래브 공사할 때 고생했어. 타워크레인 할당 시간이 새벽 2시부터였으니 말이야." 판 데를 쳐다보고 있던 아내가 고개도 돌리지 않고 대꾸한다. "두 번만 더하면 백 번째네요." 예고야! 슬래브에 첫 번째 콘크리트를 타설하고서 무수히 발생한 균열에 대한 책임 문제로 월가월부할 때, 현장 일대가 휠체어 마라톤으로 인해 교통마비가 있었고 그 점이 균열의 핵심 원인 중 하나임을 주장했던 무용담(?)은 꺼내지도 못했다.

맨유의 공식 와인 '디아블로 피노누아' 와 을지로 골뱅이의 원조 '동표 골뱅이' 큰 통 하나를 사들고 집으로 향한다. 오늘이 가장 즐거운, 나는야 구조엔지니어다.